

청소년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 및 문화적 특성과의 관계

금 명 자[†]

한국청소년상담원

본 연구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각 상담에 대해 어떤 기대를 얼마만큼 하는 지 확인하여 그 차이 점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이들 각각의 기대가 상담 경력과 상담 경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담자-내담자의 기대가 그들의 문화적 특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도 알아보았다.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 내담자 48명과 청소년 상담자 66명이 연구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 비해 지시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높게 기대하였고, 상담자는 양육성, 솔직성, 구체성, 신뢰성 등의 상담관계에 대한 기대를, 내담자는 지시성, 구체성, 전문성, 직면성 등 상담자의 전문적인 특성에 대한 기대를 높게 하여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시성에 대해 상담자는 가장 낮은 점수로, 내담자는 가장 높은 점수로 기대하여 둘 간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한편 경력상담자는 초보상담자에 비해 모든 영역에 대해 높게 기대하였고, 상담유경험 내담자는 무경험자보다 동기성과 개방성에 대해 더 높게 기대하였다. 문화적 특성 중 수직적 집단주의가 상담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 상관성이 있었으며, 수직적 개인주의와는 무관하였다.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기대 차이, 문화적 특성과의 관련성 및 상담과정에서 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 문화적 특성

금명자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금 명 자, (100-456)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한국청소년상담원,
전화 : 02-2253-3436 E-mail : mjkeum@kyci.or.kr

상담이나 심리치료란 내담자의 역할 기대를 수정하는 과정이며, 상담자와 내담자가 해야하는 역할에 관련하여 그들간에 일어나는 협상과정(negotiation process)이라고도 정의된다(Goldstein, 1962; Lennard & Bernstein, 1960). Tracey(1986)도 상담이나 심리치료란 내담자의 역할 기대를 보다 현실적이고 환경에 반응하는 융통성있는 것으로 변화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상담 실재를 다루는 교과서들(강신덕 외, 1998; 김계현, 1995; 이장호, 1995; 이해성, 박경애, 금명자, 김진숙, 2000)은 첫면접을 비롯한 상담 초기에 상담자와 내담자 각각의 역할을 공유하는 구조화 작업을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사회심리학자들(Newcomb, 1965; Sarbin, 1954; Secord & Backman, 1964)은 ‘지위에 부여되는 혹은 요구되는 기대에 따라 행동을 수행하는 것’ 혹은 ‘일정한 신분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기대되는 행동’으로 역할을 정의한다. 부모와 자녀라는 지위가 생기면 그 지위에 맞는 행동, 즉 역할을 잘 수행해야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가 이루어지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에게도 각각의 지위에 걸맞는 행동이 이루어질 때 생산적 노사관계가 형성된다. 어떤 인간관계든 관계가 이루어지면 지위가 발생하고 그 지위에게는 일련의 행동-역할행동이 요구되고 기대된다. 마찬가지로 상담에서도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그 역할에 맞는 행동들이 기대된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갈등도 이 역할 기대 때문에 일어난다. 개인의 욕구와 기대된 역할이 서로 불일치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들간의 기대가 불일치해도 역시 갈등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기대의 불일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일정 역할에 대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서로가 다른 기대를 갖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역할 자체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이다. 예를 든다면, 전자의 경우는 교수가 생각하는 교수의 역할과 학생이 생각하는 교수의 역할이 다르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후자의 예는 철수는 영희를 애인이라고 생각하는 데, 영희는 철수를 단지 친구로 생각한다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상담에 있어서도 상담자가 생각하는 상담자의 역할과 내담자가 생각하는 상담자 역할이 다를 수 있는데, 상담자는 ‘나는 내담자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담자는 ‘상담자는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학교상담실에서 만난 상담자를 학생내담자는 자기를 평가·훈육하는 생활지도교사로 본다면 그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유형의 갈등이든 간에 역할에 대한 불일치는 상담의 과정을 더디게 하거나 상담 성과에 비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각 상담과 상담 과정 혹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상담자가 높게 기대하는 것과 내담자가 높게 기대하는 바가 다를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상담의 초기과정을 어렵게 하여 시간을 소비하게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종결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상담자가 알고 있다면, 이를 구조화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상담자-내담자간의 기대차이가 그들의 문화적 특성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도 알아보려고 한다. 상담이라는 학문이 서양에서 들어왔기에 그 기본적 상담방법과 방향이 서양적이다. 문화적 배경과 관련해서 상담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상담에 대한 기대

나 그 차이가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 의한 것인지 확인된다면 상담학계의 문화적 예민성(금명자, 2001)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를 다룬 연구들은 대개 내담자 혹은 잠재적(내담자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내담자가 될 수 있는 일반인이라는 의미에서) 내담자들이 갖는 기대가 성별, 연령이나 학년 등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김은희, 주은선, 2001; 박애선, 1985; 지혜정, 1988) 혹은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에 따라(강호경, 1992; 권희경, 장재홍, 1995; 금명자, 양미진, 2002; 김성희, 1995; 김혜경, 1988; 배재현, 1993; 설명주, 1994; 우성희, 1988; 최남희, 1988) 어떻게 다른 지에 관심이 있었다. 금명자와 양미진(2002)이 이들 연구들을 요약하였는데, 학년 급이 높아질수록 상담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높아진다고 하였다. 특히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해야 될 태도와 행동을 언급한 개방성, 책임성 혹은 동기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상담자의 구체적 상담 기법들 예컨대 공감, 지시성, 직면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성별에 따른 기대 차이에 있어서, 김은희와 주은선(2001)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대체로 상담에 대해 높게 기대한다는 이전의 연구(Hardin & Yanico, 1983; Pecnik & Epperson, 1985)들과 일치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내담자의 개방성과 상담에의 동기성에서만은 성별의 차이가 없던 것으로 볼 때, 남학생들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낮은 기대 수준을 보이나 개방성과 동기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따른 기대 차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한 개인이 성숙하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적일 때 상담에 대해 보다 높은 기대를 하며, 내담자의 적극적 역할을 많이 기대한다고 보고하였다. 예컨대 금명자와 양미진(2002)은 내적 통제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담에 대한 기대를 높게 하며, 청소년 중 내적 통제자는 상담관계와 성과에 더 높은 기대를 하나 내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는 통제의 방향에 관련 없이 비교적 높았다. 권희경과 장재홍(1995)은 불안이 높은 내담자들이 상담자의 지시성, 공감성, 양육성, 전문성에 대해 더 높게 기대하며, 역압이 강한 자는 내담자의 개방성, 즉시성, 상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

한편 이장호와 금명자(1991)는 대학생 중 실제 대학상담실을 찾아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와 일반 학생들의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를 살핀 바 있다. 두 집단 모두 책임성을 가장 높게 기대하였으나, 일반 대학생들은 상담의 성과와 상담자의 전문적 기법을 높게 기대하였고 실제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전문적 기법과 내담자의 개방적 태도를 보다 높게 기대하였다. 더불어 이 두 집단 각각에 대해 요인분석했는데, 실제 내담자들은 내담자의 동기성과 역할들을 포함한 6개의 요인들을, 일반 대학생은 상담의 양육성 요인이 포함된 5개의 요인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요인수의 차이와 내용을 볼 때, 실제 내담자는 일반 대학생에 비해서 상담에 대해 보다 구체적 기대와 내담자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상담에 임한다고 하겠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기대 차이를 다룬 연구는 비교적 드물다. 오히려 내담자가 상담 초기에 무엇을 기대하는 지, 그 기대가 상담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러한 변화가 과연 상담 성과와 관련 있는 지들을 다루고 있다. Cundick(1963)와 Gulas(1974)는 치료가 진행될수록 내담자와 상담자의 역할 기대가 점점 일치하게 된다고 하였고, Gladstein(1969)은 상담이 진행되면서 내담자들의 기대가 상담자의 기대와 거의 일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내담자

의 기대가 상담자의 기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주었으나 구체적 기대 내용을 다루지 않아 어떤 기대가 일치되었는지를 알려주지 못한다. Sandler(1975)는 대학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던 97명의 내담자에게 상담 전, 3회 상담 후, 12회 상담 후에 각각 상담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여 상담자와 비교하였다. 특히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기대 유사성과 조기종결의 관계에 주목하였으며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폈다. 결과, 조기종결자는 초기 비유사성이 높았으며, 상담 진행 횟수가 진행됨에 따라 비유사성의 정도가 감소하였다. 이 연구 역시 상담자와 내담자의 불일치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어떤 기대가 특히 일치하지 않는 지에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Al-Darmaki와 Kivlighan(1993)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의 '관계'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일치하면 상담과정의 치료동맹(therapeutic alliance)을 높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기대 차이를 직접 비교하지 않았지만 상담자를 통한 지각된 차이를 다룬 연구도 있다. Tinsley, Bowman과 Barich(1993)는 상담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심리학자 72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내담자들이 상담의 기대 중 무엇을 비현실적으로 크게 혹은 작게 기대하고 있다고 지각하는지와 그러한 비현실적 기대들이 상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폈다. 결과 상담심리학자들은 내담자들이 상담자의 구체성, 양육성, 지시성, 공감성 그리고 성과등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기대하고, 즉시성, 동기성, 개방성, 책임성, 직면성등은 비현실적으로 작게 기대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돌봐줄 것을 지나치게 많이 기대하지만, 정작 내담자들이 해야할 일들에 대해서는 필요보다 훨씬 적게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과 상담자에

대해 실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담의 효과에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오히려 내담자의 적극적 참여성들, 예컨대 동기성, 책임성, 개방성들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으로라도 높게 기대하고 있다면 상담 성과에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내담자의 상담 경험 유·무에 따라 상담에 대한 기대가 달라진다는 연구도 있다. Subich와 Coursol(1985)의 연구는 실제 내담자는 책임성과 수용성, 공감성을, 비내담자들은 양육성을 각각 높게 기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은희와 주은선(2001)은 상담의 경험이 상담에 대한 기대의 차이를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사실 상담 경험이 상담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결과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상담 경험이 상담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확인하여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무엇을 배우는 지도 알아본다.

한편 상담은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작업이며, 문화적 특성에 따라 상담에 대한 태도와 기대도 달라질 것이다. 금명자(2001)는 상담의 비교문화연구들을 몇 가지 영역 - 상담자 역할, 내담자 호소문제, 문제 대응 방식,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요구, 상담자들의 차이 - 으로 나누어 서양과 동양 혹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였다. 서양의 연구들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영역은 상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이다. 서양에서 상담자 혹은 심리치료자는 상담비를 받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이지만, 우리나라 혹은 동양의 연구에서 나타난 상담자는 '어른'(장성숙, 1999, 2000), '선생님'(teacher)(Taketomo, 1989; Tsui & Shulz, 1985)), '스승'(master)(Joo & Orinsky, 1994)으로 표상되어 있다. 이러한 차별적 표상은 상담면접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지시나 조언을 구하는 행동이나 기대를 하게 한다(금명자, 이장호, 1991; 박재황, 1990).

박외숙(1992)은 미국 내의 아시안계 나라에서 유학 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아시안계 유학생들과 상담할 때에는 상담자도 내담자의 가치성향과 유사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영희, 박외숙과 고향자(1996)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내담자는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내담자는 상담자의 가치에 따른 선호나 평가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 박외숙(1992)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상호작용 효과를 더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영희 등(1996)은 한 문화권 내에서도 각 개인의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성향을 고려하여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화에 따른 상담의 방법이나 과정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이 주로 사용한 변인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이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은 동·서양을 대별할 때 우선 제시되는 가치관으로, 사고, 행동, 정서에 일관성있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집단주의 문화의 사람은 집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반면, 개인주의 문화의 사람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둔다. 또한 집단주의자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집단으로부터 배척될 경우 이를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개인주의자들은 체면보다는 성취감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이수원, 1995). 그러나 Singelis, Triandis와 Bhawuk(1995)는 동일한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문화 내에서도 사람들간에 평등이나 경쟁의 정도가 다름을 지적하면서 수직성과 수평성의 개념을 삽입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개인의 자율적인 자아가 중요한 개인주의도 개인들이 불평등하여 경쟁을 가정하는 수직적 개인주의와 개인들간의 평등을 가정하는 수평적 개인주의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집단주의도 역시 집단 속의

개인들의 평등을 가정하는 수평적 집단주의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지위를 가지는 불평등을 가정하는 수직적 집단주의로 나누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협동농장인 키부츠는 수평적 집단주의 문화를 대표하지만, 어른과 아이가 엄연하고 남편과 아내를 구별하는 우리나라 문화는 수직적 집단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Yoo(1997)는 동양문화권의 집단주의적 성향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보다는 집단 구성원들간의 조화를 중시하고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평화를 위해 개인의 절제된 행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거나 상담을 덜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연구에서는 집단-개인주의 성향보다는 수평-수직적 사고가 상담에 대한 태도에 더욱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에 비해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 학생과 한국 학생들은 수평주의와 수직주의에 각각 의미있는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유성경과 유정이(2000)는 정신병리에 대한 오점수용(stigma)정도와 개인주의-집단주의 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직적 개인주의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신병리에 대한 오점 수용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양 문화의 집단주의가 상담에 대한 동양인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수직적-수평적 관계 차원이 더 관련이 큼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에 대한 기대에 이러한 문화적 차이, 특히 개인-집단주의와 수직-수평주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려 한다. 우선은 내담자와 상담자들이 어떤 문화적 특성이 내재화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상담에 대한 다양한 기대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대상

내담자

서울에 소재한 공공 청소년상담실에 상담을 신청한 청소년 내담자 4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질문지는 접수면접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구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부탁한 후 실시되었다. 질문지를 완성한 내담자들은 남자가 21명(43.8%)이었고, 여자 27명(56.3%)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10-15세는 21명, 16-20세는 23명, 21-24세는 4명이었다. 이들 중 이전에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내담자(무경험자)는 25명(52.1%)이었고, 학교나 일반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 자는 14명(29.2%),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 내담자는 2명(4.2%), 병원, 학교, 상담소 모두에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 자는 3명(6.3%), 전화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 자는 1명(2.1%)으로 집계되어, 병원, 학교, 상담소 등 어디에서든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경험한 자를 합하여 상담의 유경험자(20명, 41.7%)로 분류하였다.

상담자

모두 66명(남: 3명, 여: 63명; 20-25세: 4명, 26-30세: 21명, 31-35세: 21명, 36-40세: 11명, 41-50세: 7명, 50-60세: 2명)의 상담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중고등 및 대학교(7명), 정부지원상담실을 비롯하여 학교외 상담실(59명)등이었다. 이들이 사용하는 주된 상담방법은 정신역동적 입장은 7명(10.6%), 인본주의적 입장은 12명(18.2%), 인지행동적 입장은 7명(10.6%), 절충적 입장은 37명(56.1%), 기타가 3명이었다. 이들의 상담 경력은 1-3년은 32명(48.5%), 4-5년은 12명(18.2%), 6-10년

은 18명(27.3%), 11-15년은 3명(4.5%) 그리고 16-20년은 1명(1.5%)으로 집계되어, 1-3년의 32명은 상담경력의 초보자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22명은 경력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도구

상담에 대한 기대척도(Expectation About Counseling: EAC)

Tinsley, Workman과 Kass(1980)가 개발한 7점 척도로 6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이장호와 금명자(1991)가 이를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다시 금명자와 양미진(2001)이 뜻을 분명하게 하려고 몇 개의 문항을 수정하여 만든 질문지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97이었다. 상담에 대한 기대는 모두 18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실성(reality) 척도는 상담실에 따라서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7개(동기성, 개방성, 책임성, 매력성, 전문성, 인내성, 신뢰성, 구체성, 즉시성, 성과, 수용성, 직면성, 지시성, 공감성, 솔직성, 양육성, 자기공개)의 하위척도만 분석하였다. 더불어 금명자와 양미진(2001)이 분석하여 얻은 4개(상담관계, 상담자의 전문성, 내담자 역할, 상담성과)의 요인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들은 17개의 하위척도들을 상담의 동일한 영역들로 묶었다는 의미가 있다. 예컨대, 하위척도 전문성, 지시성, 직면성 등은 상담자의 전문성 요인에, 하위척도 공개성, 개방성, 책임성 등은 내담자의 역할 요인으로 묶여진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질문지(The Scale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Singelis, Triandis와 Bhawuk(1995)가 개발한 질문지로, Yoo(1997)가 번안하여 사용하고, 유성경과

유정이(2000)연구에서도 사용하였던 것을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32개의 문항으로,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하위척도별 각각 8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수직적 개인주의 문항에는 4. 다른 사람이 나보다 뭔가를 잘 해냈을 때 나는 속이 상한다. 8. 나는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하는 것을 즐긴다 등이 포함되고, 수평적 개인주의 문항에는 10. 나는 종종 '나만의 일'을 한다, 22.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에게 의존한다 등이 포함된다. 수직적 집단주의 문항에는 17. 아이들은 즐기는 것 이전에 의무를 우선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30.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대다수가 원하는 바를 존중한다 등이 포함되며, 수평적 집단주의 문항에는 1. 나

의 행복은 내 주위 사람들의 행복에 상당히 달려 있다, 19. 나는 다른 사람들과 협동할 때 기분이 좋다 등이 포함된다. 본 질문지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실시하였고,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75였다.

결 과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의 하위척도별, 요인별 특성 및 차이

표 1에서 일견하듯이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는 대체로 높았다(7점 만점에서 3.41 - 5.27의 범위). 상담자들은 양육성에 대해 가장 높게(5.27)

표 1. 상담자와 내담자의 하위 척도별 상담에 대한 기대 및 차이

하위척도	상담자(66명)		내담자(48명)		t 점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동기성	4.02	1.21	2.77	1.30	5.28**
개방성	4.55	.94	3.46	1.32	5.13**
책임성	4.43	.90	3.51	1.27	4.56**
매력성	4.37	.97	2.47	1.02	10.02**
전문성	4.57	.94	3.53	1.52	4.51**
인내성	4.25	1.02	3.41	1.14	4.13**
신뢰성	4.71	.95	3.22	1.41	6.76**
구체성	4.84	.85	3.57	1.32	6.22**
즉시성	4.59	.82	3.03	1.13	8.55**
성과	4.70	.95	3.26	1.14	7.28**
수용성	4.62	1.04	3.10	1.30	6.91**
직면성	4.47	.99	3.50	1.25	4.58**
지시성	3.41	1.09	3.61	1.31	-.888
공감성	4.47	.91	3.36	1.24	5.48**
솔직성	5.12	1.01	3.35	1.36	7.98**
양육성	5.27	.85	3.49	1.46	8.20**
자기공개	3.76	1.22	3.26	1.41	2.00**

주. ** $p < .01$

표 2. 상담자와 내담자의 요인별 상담에 대한 기대 및 차이

요 인	상담자		내담자		t 점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담관계	4.57	.80	3.32	1.13	6.81**
상담자의 전문성	4.36	.75	3.51	1.24	4.48**
내담자의 역할	4.32	.82	2.79	1.03	8.71**
상담성과	4.72	.86	3.43	.98	7.36**

주. ** $p < .01$

기대하였고, 솔직성, 구체성, 신뢰성, 성과 등이 비슷하게 높았다. 반면 상담자의 지시성에 대해서는 가장 낮게(3.41) 기대하였고, 자기공개, 동기성 등에 대해서도 낮게 기대하고 있었다. 내담자들은 상담자에 비해 대체로 상담에 대해 낮게(7점 만점에서 2.47-3.61의 범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담자의 지시성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3.61) 기대를 하였고, 구체성, 전문성, 책임성, 직면성 등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기대하였다. 이들 하위척도들은 대개가 상담자의 전문적 상담방법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반면 상담자의 매력성(2.47), 상담에의 동기성(2.77), 즉시성(3.03) 등에 대해서는 낮게 기대하였다. 다시 말해 상담자는 상담자의 양육성, 솔직성, 신뢰성 등의 상담 관계에 대해 보다 높은 기대를 하였으나 내담자는 상담자의 지시성, 전문성, 구체성, 책임성 등의 상담자의 주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방법에 높은 기대를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내담자들이 상담자를 일차적으로는 선생님, 스승님과 같은 지도와 안내를 주는 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내담자는 상담자의 개인적 매력이나 상담에서의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가장 낮은 기대를 하므로써 위의 특성을 다시 한번 지지한다고 하겠다. 상담에 대한 기대 요인별 상담자와 내담자의 차이를 표 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전문성 요인(3.51)에 대해 가장 높은 기대를 하였고, 상담 성과, 상담관계, 내담자 역할 순으로 연결되나, 상담자들은 상담성과(4.72), 상담관계, 상담자의 전문성 그리고 내담자 역할 순이었다.

t검증을 통해 드러난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하위척도별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는 거의 모든 하위척도들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보다 더 높게 기대하였다. 그러나 유일하게 차이가 없었던 하위척도는 상담자의 지시성으로서, 이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없다는 의미보다는 상담자는 지시성에 대해 가장 낮게 기대하였고, 내담자는 가장 높게 기대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상담자가 문제 해결 방법을 지시해 줄 것을 기대하는 지시성에 대해 상담자는 가장 낮은 점수로 내담자는 가장 높은 점수로 기대한다는 결과는 두 집단간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상담자의 경력별, 내담자의 상담경험별 기대 차이

표 3에는 상담자 내에서도 상담의 경력이 길고 짧음에 따라 상담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다른지 나타나있다. 상담 경력이 1-3년까지의 비교적 초보상담자 수준의 32명과 6년 이상의 중간 경력

표 3. 경력별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 및 차이

상담에 대한 기대 (하위척도 · 요인)	경력상담자		초보상담자		t 점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동기성	4.64	1.09	3.42	1.16	3.90**
개방성	5.11	.65	4.21	1.00	3.72**
책임성	5.00	.82	4.07	.82	4.08**
매력성	4.98	.83	3.93	.85	4.55**
전문성	5.06	.83	4.29	.96	3.05**
인내성	4.65	.94	3.99	.96	2.51**
신뢰성	5.11	.73	4.44	1.08	2.54**
구체성	5.39	.69	4.53	.70	4.45**
즉시성	5.16	.71	4.21	.71	4.83**
성과	5.23	.89	4.41	.87	3.36**
수용성	5.12	.72	4.35	1.11	2.85**
직면성	4.87	.90	4.07	.99	2.98**
지시성	3.65	1.11	3.12	1.09	1.74**
공감성	4.97	.92	4.17	.77	3.43**
솔직성	5.48	.92	4.91	1.05	2.09**
양육성	5.64	.76	5.07	.85	2.50**
자기공개	3.94	1.21	3.52	1.20	1.26**
상담관계요인	5.01	.58	4.28	.82	3.49**
상담자전문성요인	4.81	.64	4.06	.72	3.97**
내담자역할요인	4.91	.65	3.85	.69	5.65**
상담성과요인	5.30	.76	4.36	.75	4.51**

주. ** $p < .01$

이상의 22명 경력상담자를 상담에 대한 하위척도 별, 요인별 기대의 평균을 차이 검증해 보았더니 경력상담자가 초보자에 비해 상담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내담자는 상담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담에 대해 낮게 기대하지만, 표 4에서처럼 상담이나 심리치료 경험이 있는 자 20명과 상담 경험이 전혀 없는 25명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하위척도에서는 동기성과 개방성에서, 요인에서는 내담자의 역할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상담을 경험한 내담자는 그렇지 않은 내담자에 비해 상담에 임할 때 더 높은 동기를 가지고, 더 많이 자신을 개방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담의 유경험자가 상담에서 내담자의 역할에 대해 높게 기대하고 있다는 결과를 확실하게 뒷받침해 준다. 상담의 경험이 내담자들로 하여금 내담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켰다고 하겠다.

표 4. 상담경험 유·무별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 및 차이

상담에 대한 기대 (하위척도·요인)	상담 유경험자(20명)		상담 무경험자(25명)		t 점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동기성	3.27	1.33	2.43	1.20	2.22*
개방성	4.00	1.26	3.15	1.26	2.22*
책임성	3.78	1.27	3.38	1.27	1.04
매력성	2.78	.93	2.31	1.08	1.56
전문성	3.78	1.37	3.47	1.67	.68
인내성	3.65	1.14	3.33	1.14	.93
신뢰성	3.37	1.32	3.21	1.54	.35
구체성	3.88	1.20	3.44	1.44	1.07
즉시성	3.41	1.13	2.82	1.11	1.72
성과	3.35	1.42	3.28	.94	.20
수용성	3.20	1.13	3.13	1.45	.17
직면성	3.67	1.14	3.51	1.35	.42
지시성	3.82	1.05	3.57	1.53	.61
공감성	3.58	1.03	3.29	1.42	.77
솔직성	3.52	1.27	3.32	1.49	.47
양육성	3.67	1.45	3.48	1.50	.42
자기공개	3.37	1.37	3.33	1.48	.08
상담관계요인	3.47	.92	3.33	1.28	.41
상담자전문성요인	3.75	1.08	3.44	1.38	.81
내담자역할요인	3.22	.95	2.54	1.03	2.24*
상담성과요인	3.72	1.06	3.31	.87	1.38

주. * $p < .05$

문화적 특성과 기대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적 특성별 점수가 표 5에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수평적 개인주의가 가장 높고 수직적 개인주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상담자는 수평적 개인주의나 수평적 집단주의 점수가 수직적 개인주의 점수와 1점 이상 차이가 있지만, 내담자에게서는 그들간의 차이가 비교적 적어, 상담자가 내담자에 비해 수평주의가 보다 확고하게 내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적 특성과 상담에 대한 기대와의 관련성을 Pearson 상관계수로 확인하였고, 표 6과 표 7에서처럼 상담자와 내담자가 동일한 특성을 보였다.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수직적 집합주의 특성이 상담에 대한 기대 총점수와 정적 상관(상담자: $r = .34$, 내담자: $r = .30$)이 있었다. 특히 내담자의 경우는 상담자의 전문성과 내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수직적 집단주의와 긍정적 상관이 있었고, 상담자의 경우는 상담 관계와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가 수직적 집단주의와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상담자와 내담자를 합할 경우(표 8),

표 5.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적 특성별 점수

문화적 특성	상담자		내담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직 집단주의	4.49	.84	4.29	1.07
수직 개인주의	3.87	.71	4.18	1.00
수평 집단주의	4.91	.71	4.32	1.08
수평 개인주의	4.96	.73	4.48	.86

표 6. 내담자의 요인별 상담에 대한 기대와 문화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기대총점	-									
2. I-C총점	.27	-								
3. 상담관계요인	.92**	.22-	-							
4. 상담자전문성요인	.92**	.31*	.75**	-						
5. 내담자역할요인	.84**	.20	.70**	.72**	-					
6. 상담성과요인	.76**	.24	.63**	.64**	.73**	-				
7. 수직적 집단주의	.30*	.80**	.26	.34*	.30*	.14	-			
8. 수직적 개인주의	.07	.72**	.02	.16	.10	.08	.35*	-		
9. 수평적 집단주의	.27	.78**	.28	.26	.25	.20	.70**	.31*	-	
10. 수평적 개인주의	.17	.63**	.08	.17	.11	.34*	.23	.51**	.22	-

주. * $p < .05$, ** $p < .01$

표 7. 상담자의 요인별 상담에 대한 기대와 문화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기대총점	-	.30*	.91**	.93**	.79**	.86**	.34**	.09	.24	.06
2. I-C총점		-	.22	.31*	.18	.13	.82**	.65**	.68**	.34**
3. 상담관계요인			-	.80**	.57**	.69**	.28*	-.02	.19	.06
4. 상담자전문성요인				-	.71**	.83**	.36**	.13	.28	-.29
5. 내담자역할요인					-	.82**	.18	.12	.17	-.02
6. 상담성과요인						-	.18	-.03	.16	.01
7. 수직적 집단주의							-	.48**	.56**	-.05
8. 수직적 개인주의								-	.18	.00
9. 수평적 집단주의									-	-.05
10. 수평적 개인주의										-

주. * $p < .05$, ** $p < .01$

표 8. 요인별 상담에 대한 기대와 문화적 특성과의 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기대총점	-									
2. I-C총점	.34**	-								
3. 상담관계요인	.94**	.29**	-							
4. 상담자 전문성 요인	.92**	.36**	.81	-						
5. 내담자 역할 요인	.87**	.25**	.76**	.75**	-					
6. 상담 성과 요인	.87**	.26**	.76**	.75**	.85**	-				
7. 수직적 집단주의	.32**	.81**	.28**	.36**	.24*	.19*	-			
8. 수직적 개인주의	-.04	.63**	-.10	.06	-.14	-.08	.38**	-		
9. 수평적 집단주의	.38**	.75**	.37**	.37**	.35**	.33**	.64**	.19*	-	
10. 수평적 개인주의	.25**	.53**	.23**	.20*	.21*	.29**	.12	.21*	.18	-

주. * $p < .05$, ** $p < .01$

수직적 개인주의를 제외한 모든 문화적 특성과 긍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시 말해 청소년 상담자와 내담자의 경우 수직적 집단주의와 상담에 대한 기대가 가장 관련이 높았고, 수직적 개인주의와 가장 무관하였다.

논 의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상담자가 내담자에 비해 지시성을 제외한 상담의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 높은 기대를 하였다. 특히 양육성, 솔직성, 구체성, 신뢰성, 성과 등 상담 관계와 성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기대를 하였고, 상담자의 지시성, 자기공개성, 내담자의 동기성 등에 대해서는 낮은 기대를 하였다. 한편 경력상담자가 모든 영역에서 초보상담자보다 상담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였다.

둘째로, 내담자는 상담자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가 낮았지만, 하위척도별로는 상담자의 지시성, 구체성, 전문성, 직면성 등

의 상담자의 전문적 방법에 대해서는 높게 기대하였으며, 내담자의 상담에의 동기성, 상담과정의 즉시성 등에 대해서는 낮게 기대하였다.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 내담자는 그렇지 않은 내담자에 비해 동기성과 개방성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셋째로, 지시성(directiveness)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상담자와 내담자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에게서는 가장 낮은 점수로, 내담자에게서는 가장 높은 점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 집단의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넷째로, 문화적 특성과의 관계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수직적 집단주의가 상담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수직적 개인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특히 상담자의 경우는 수직적 집단주의와 상담관계, 상담자의 전문성이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내담자의 경우에는 수직적 집단주의와 상담자의 전문성, 내담자 역할이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내담자는 상담자가 기대하는 것 보다 상담에 대한 기대가 낮으며, 그 영역에서도 차이가 있다. 상담자는 양육, 솔직, 신

뢰와 같은 상담 관계 형성에 필요한 촉진적 태도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였지만 내담자는 지시, 구체, 전문, 직면 등의 상담자의 전문적이고 지시적인 태도를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상담자는 상담에서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해줄 것을’, ‘상담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 지를 말해 줄 것을’ 그리고 ‘상담자는 자주 나에게 충고를 할 것’을 기대하는 지시성에 대해 상담자는 가장 낮은 점수로, 내담자는 가장 높은 점수로 기대하였다는 결과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담과정과 역할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한다. 상담자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따뜻하고, 솔직하고, 신뢰롭게 상담을 진행시키려 하지만 내담자는 상담자의 전문적 능력과 지시적 태도를 기대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둘 간에는 갈등이 생길 것이며, 이러한 갈등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내담자에 따라서 치명적 조기탈락(Borgh, 1968; Sandler, 1975)으로 연결될 수 있다. 상담에서의 기대 차이는 그 차이를 감소시키거나 다루므로써 차이가 주는 부정적 효과를 예방할 수 있다. 전자는 상담전이나 상담 초기에 교육이나 구조화를 통해 상담과 상담자 역할, 내담자 역할을 바로 잡는 것이고 후자는 내담자의 실망을 지각하여 즉시적으로 직접 다루는 방법이다. 특히 내담자들은 상담에서 자신이 해야할 일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므로, 상담 특성을 알려주어 내담자의 초기불안을 완화하고(이은순, 1994), 상담과 변화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주지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상담에 개입하게 해야한다. 요즈음 심리적, 정신적 고민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 심리상담보다는 역술이나 점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성은 내담자들이 상담자에게서 지시성과 직면성 등을 기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내담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진정한 변화는 노력과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작업임

을 강조하는 것이 상담에 대한 오해와 그로 인한 비효율성 예방에 필요하다.

경력상담자가 초보상담자에 비해 상담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결과는 경험과 연륜이 많아질수록 상담에 대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지어 상담자의 지시성이나 자기공개성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보면, 상담 경력이 내담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상담에서는 모든 것이 융통성있게 활용되어지고 필요함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 같다. 상담유경험 내담자가 무경험내담자에 비해 상담의 동기성과 개방성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는 결과는 상담을 통해 개인적 문제만 해결할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도 학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문제 해결의 관건은 내담자의 참여에 있는데, 유경험 내담자가 무경험 내담자에 비해 자발성을 가지고 인내심있게 상담에 임하는 것,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야할 것을 높게 기대한다는 결과는 상담에서 문제 해결 방법이 전이학습된 결과라 하겠다.

상담에 대한 기대와 문화적 특성을 관련지어 보고자 했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과 서양 사람이 상담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면 문화적 특성을 통해 그 차이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먼저 연구에 참가했던 청소년이나 상담자들은 집단주의 특성이 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평주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Yoo(1997)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내재화된 문화적 특성이 서양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 다.

한편 문화적 특성과 상담에 대한 기대와의 관련에서는 수직적 집단주의가 상담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 관련이 있었다. 상담자의 경우는 수직적 집단주의가 상담의 관계와 상담자의 전문성으로

연결되었고, 내담자의 경우는 상담자의 전문성과 내담자의 역할로 연결되었다. 개인을 집단의 일부로 생각하지만, 집단 속의 개개인은 서로 다르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지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관점인 '수직적 집단주의' 특성이 상담에 대한 기대와 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담을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상담자와 상대적으로 약하고 부족한, 그래서 수동적이어도 되는 내담자로 이루어진 관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담자들이 상담자의 문제 해결에 대한 직접적 지시나 조언 혹은 지지를 많이 기대한다는 결과도 바로 수직적 집단주의가 상담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집단주의적 특성이 상담자에게는 상담 관계에, 내담자에게는 내담자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렇듯 상담은 문화적 특성에 맞추어 다루어져야만 하는 과정임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48명의 청소년 내담자와 66명의 상담자등 비교적 제한된 대상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큰 규모의, 다양한 내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적 경향성과 관련해서는 더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평적 개인주의 특성을 많이 보인다는 결과는, 우리나라는 집단주의군에 속할 것이고, 그것도 수직적 집단주의일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기에 다양한 연령이나 직업군에서 확인되어야 할 내용이다. Yoo(1997)도 수평적 개인주의가 많은 이유로 연령과 학력에 기인하는 것 같다고 하여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본 연구 역시 대상이 상담자라는 서구식 교육을 많이 받은 자들과 청소년이었다는 특성이 있다. 더군다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동일한 수직적 집단주의라고 하더라도 상담자와 내담자에 따라 그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단에 따른 문화적 특성과 상담과의 관련성은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영역이다.

참고문헌

- 강신덕, 금명자, 김진숙, 김혜숙, 박경애, 유성경, 임은미, 최은영 (1998). 청소년 개인상담 실습교재,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강호경 (1992). 상담자의 내외통제와 상담방법 및 내담자의 기대수준과의 관계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희경, 장재홍 (1995). 상담에 대한 내담자들의 기대, 심리검사 및 상담연구(1), 75-96, 연세대학교.
- 금명자 (2001). 한국문화와 청소년상담, 장혁표, 최상진, 최준식, 유성경, 금명자, 한국문화와 청소년상담 세미나,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금명자, 양미진 (2001). 청소년과 부모의 내외통제성에 따른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75-94.
- 금명자, 이장호 (1991). 우리 나라 대학생의 상담에 대한 기대, 학생연구, 26(1), 1-18.
- 김계현 (1995).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성희 (1995). 심리사회적 성숙도, 의사결정 유형과 상담에 대한 기대감과의 관계 연구: 내담자 변인과 상담자 변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 주은선 (2001). 내담자 변인과 상담형태에 따른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51-78.
- 김혜경 (1998). 상담경험과 성격유형에 따른 상담

- 에 대한 기대감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애선 (1985).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외숙 (1992). Asian foreign students' evaluations of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counseling styles.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1, 108-128.
- 박재황 (1990). Relationship of culture and Attributional style to anticipations about counseling. 대학상담연구, 1(1), 89-104.
- 배재현 (1993). 성격유형, 심리사회적 발달정도와 상담에 대한 기대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명주 (1994). 성격유형에 따른 상담의 기대감과의 관계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성희 (1988). 상담에 대한 기대감과 성별, 특성, 문제유형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유정이 (2000).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9-32.
- 이수원 (1995).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넘어서: '문화와 인지: 타인 이해의 연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한국심리학회 통계심포지움: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 188-195, 한국심리학회.
- 이영희 (1982). 문화와 상담: 문화지향적 상담을 위한 서론.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23, 119-144.
- 이영희, 박외숙, 고향자 (1996). 상담자-잠재적 내담자의 가치관 유사성과 기대되는 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8(1), 27-45.
- 이은순 (1994). 상담에서의 구조화와 그 중요성. 학생생활연구 30.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장호 (1995). 상담심리학, 3판. 서울: 박영사.
- 이장호, 금명자 (1991). 우리나라 대학생의 상담에 대한 기대. 학생연구, 26(1), 1-18,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혜성, 박경애, 금명자, 김진숙 (2000). 청소년 상담의 과정 및 기법,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장성숙 (1999).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 현실역동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9-33.
- 장성숙 (2000). 현실역동 상담 - 한국인의 특성에 적합한 상담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7-32.
- 지혜정 (1988). 내담자 변인에 따른 상담기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남희 (1998). 고등학생의 성격유형 및 문제유형과 상담에 대한 기대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Darmaki, F., & Kivlighan, D. M. (1993). Congruence in client-counselor expectations for relationship and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379-384.
- Cundick, B. (1963). The relation of student and counselor expectations to rated counseling satisfaction. *Dissertation Abstracts*, 23, 2983-2984.
- Borghi, J. (1968). Premature termination of psychotherapy and patient-therapist expectations. *Journal of Psychotherapy*, 22, 460-473.
- Gladstein, G. A. (1969). Client expectations, counseling experiences and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6, 476-481.

- Goldstein, A. P. (1962). *Therapist-Patient Expectancies in Psychotherapy*. New York: Pegamon Press.
- Gulas, L. I. (1974). Client-therapist congruence in prognostic and role expectations as related to client's improvement in short-term psychotherap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5, 243013.
- Hardin, S. I. and Yanico, B. J. (1983). Counselor gender, types of problem, and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294-297.
- Joo, E., & Orlinsky, D. E. (1994). Psychotherapeutic relationship in different cultures. *Proceedings of 1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therapy*, Korea.
- Lennard, H. L., & Bernstein, A. (1960). *The Anatomy of Psychotherapy: Systems of Communication and Expectation*.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 Newcomb, T. M. (1965). *Social Psychology* (pp. 323-327).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ston.
- Pecnik, J. A., & Epperson, D. L. (1985). Analogue study of expectations for christian and traditional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127-130.
- Sandler, W. (1975). Patient-therapist dissimilarity of role expectations related to premature termination of psychotherapy with student therapist.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5, 6111-6112.
- Sarbin, T. R. (1954). Role theory, in G. Lindzey(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 225). Mass: Addison Wasley Publishing Co.
- Secord, P. F., & Backman, C. W. (1964). *Social Psychology* (p. 457). New York: McGraw-Hill.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e Research*, 29, 240-275.
- Subich, L. M., and Coursol, D. H.(1985). Counseling expectations clients and nonclients for group and individual treatment mod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245-251.
- Taketomo, Y. (1989). An American-Japanese transcultural psychoanalysis and the issu of teacher transference. *Journal of Americal Academy of Psychoanalysis*, 17, 427-450.
- Tinsley, H. E. A., Bowman, M. T., & Barich, A. W. (1993). Counseling psychologists' perceptions of the occurrence and effects of unrealistic expectations about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mong their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1), 46-52.
- Tinsley, H. E. A., Bowman, M. T., & Ray, S. B.(1988). Manipulation of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Review and analysis of expectancy manipulation strategies and resul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99-108.
- Tinsley, H. E. A., Workman, K. R., & Kass, R. A.(1980). Factor analysis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561-570.
- Tracey, I. J. (1986). International correlates of premature termin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therapy*, 54, 784-788.
- Tsui, P. & Schulz, G. L. (1985). Failure of rapport: Why psychotherapeutic engagemen fails in the treatment of Asian cli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5, 561-569.
- Yoo, S. K. (1997). *Individualism-Collectivism, Attribution*

styles of Mental Illness, Depression Symptomatology,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원 고 접 수 일 : 2002. 6.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2. 8. 29

계 재 결 정 일 : 2002. 9. 7

K C I

Difference of Counseling Expectation Between Counselor and Client and Correlation of Cultural Difference

Myoung-Ja Keum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between counselors and clients, beginning and experienced counselors, and previously counseling experienced and non-experienced clients. The correlation with their cultural difference(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verticalism-horizontalism) and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was also examined. Participants were 66 counselors and 48 adolescents. The results were a) counselor's expectation was higher than client's one in most subscales, b) experienced counselors had higher score on most sub-expectations than beginning counselors, c) previously counseling experienced clients had higher score on expectation of motivation and openness than non-experienced clients, and d) for both counselors and clients, the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vertical collectivism and was not correlated with vertical individualism. In addition, the meaning of the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counselor for youth client, cultural background